

보도일시

2026. 8. 26.(수)

배포

2026. 8. 26.(수)

동해해수청, 묵호항 입·출항로에 '가상 항로표지' 설치

- 선박 항해장비에 실시간 위험구역 표시로 묵호항 항해 선박 안전 강화 -

동해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정인)은 묵호항을 이용하는 선박의 안전한 입·출항을 지원하기 위해 묵호항 남방사제 입구 위험구역에 가상 항로표지(Virtual AIS AtoN)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상 항로표지 설치는 최근 묵호항 입항 과정에서 발생한 방파제 접촉사고를 계기로, 협소한 항로와 어선 통항 등으로 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구간의 항행안전시설을 보강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가상 항로표지는 해상에 부표 등 별도의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AIS(자동위치식별장치) 신호를 이용해 전자해도 등 선박의 항해장비 화면에 항로표지 위치를 표시하는 방식이다.

동해해수청은 기존 묵호항동방파제등대에 설치된 AIS AtoN 장비를 활용해 묵호항 남방사제 입구 주요 변침지점에 가상 항로표지(Virtual_MUKHO PORT) 신호를 송출하도록 구축했다.

이에 따라 인근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은 항해장비를 통해 가상 항로표지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 위험구역에 대한 항해자의 상황인식이 향상되고, 방파제 접촉사고 예방과 안전한 입·출항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해상의 별도 구조물 없이 기존 AIS 시설을 활용하여, 선박 통항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효율적으로 항행안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동해해수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 여건과 선박 통항 특성을 고려한 항행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안전한 해상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행정보시설과	책임자	과 장	최금성 (033-520-6271)
		담당자	주무관	이유경 (033-520-6279)

